

Growth Hackers 16 기 지원서

안녕하세요, Growth Hackers 16 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서(pdf), 2) Quest 풀이 설명 파일(pdf), 3) Quest 해결을 위해 사용한 소스 코드 파일 (ipynb/py/R 등)을 Quest 파일에 있는 설명에 따라 함께 압축하여 'recruit@ghsnu.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압축 파일 및 이메일 제목: '[\(지원자 이름\)-DA/DS\(지원자가 선택한 전형\)-GH16 기-지원](#)')

지원서는 이 word 파일에 내용 작성 후 pdf 로 변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서 1 번의 기본 인적사항 표 하단의 구글폼을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지원 시 유의사항

1. 제출 기한은 **8 월 25 일 일요일 23 시 59 분**입니다. **늦은 지원서는 받지 않습니다.** 마감 기한에 촉박하게 메일을 보내실 경우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 메일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 분 전에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Growth Hackers 는 학회 특성상 기초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 분석 소양을 확인하기 위한 Quest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Quest 풀이에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시어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Quest 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제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3. Growth Hackers 에 들어온 학기와 직후 방학 학기, 그리고 그다음 학기까지 연속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16 기의 경우 2024 가을학기, 2024 겨울학기, 2025 봄학기를 연속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 Growth Hackers 는 **매주 화(19:30~22:30), 목(19:30~22:30), 토(13:30~17:30)** 주 3 회 정기 Session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Education Session 이 진행되는 9 월 ~ 10 월 초에는 **월(19:30~22:30)**에도 Session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Quest, 프로젝트별 task, 팀 활동 등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Growth Hackers 는 결석과 지각에 대한 벌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석 및 지각이 반복되거나 활동에 불성실한 경우 Growth Hackers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작성 등 리크루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Growth Hackers(@ghsnu)**로 주시면 됩니다. (링크: bit.ly/GH16th_ASK)

7. 당일 22 시까지 제출하신 분들에 한하여 구글폼, 지원서, Quest 를 모두 제출하시면 당일 자정 전까지 Growth Hackers 측에서 지원 완료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Growth Hackers(@ghsn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인적 사항 (반드시 아래 링크를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성별	조원준	생년월일	2001.02.09
입학연도	2020	수료 학기 수/ 남은 학기 수	6/3
주전공	지구환경과학부	복/부/연합 전공	산업공학과
연락처	010-9938-5660	E-mail	wonjoon123@snu.ac.kr

* 링크: bit.ly/GH16th_INFO

2. 추가 사항 (지원서 당락에는 영향이 없지만, 면접 시 질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수강한 Data Science(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등) / Business 관련 과목)이 있다면 과목명과 수강 일시를 적어주세요.
선형대수학(21.2) 미분방정식(22.1) 기술경영(22.2) 생활코딩 sql(mysql), 머신러닝 1, tensorflow(python)(24 년)
사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및 라이브러리, 기타 데이터 분석 툴과 그 수준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Python (advanced) Numpy,Pandas,matplotlib Sql(beginner)
예정된 학회 기간 중 참여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사유와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활동 시간에 중대한 사유가 아닌 불참 및 지각의 경우,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x

3. 자기소개서

1. Growth Hackers 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목적을 작성해 주세요. (공백 포함 500 자 이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다양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 예술, 인문학 등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3 학년까지 다양한 전공 외 강의들을 접했고, 예체능 관련 여러 동아리, 프레젠테이션 학회, 교육 봉사, 토론 동아리 등 전통적인 커리어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해진 길이 없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제 자신에게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분석, 문제해결, 설득 능력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능력들을 논리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들을 창출하든지,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대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에 스스로 부딪혀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팀과 함께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수업이나 대외활동, 인턴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비즈니스 관련하여 진행하였던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문제를 마주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상세히 적어주세요. 해당 주제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면 다른 주제의 프로젝트나 팀 프로젝트 등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공백 포함 1,000 자 이내)

산업공학과와 기술경영 수업에서 특정 기업의 기술 개발 방향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벨류체인 분석, 산업 및 기업 분석, 그리고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비즈니스적 요소가 많은 분석 파트를 맡다 보니, 이공계 과목을 수강할 때는 들지 않던 어느 모호함이 존재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의 분석 결과에 대해 스스로조차 설득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팀원들과의 토론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국에 Swot 기법, 포지셔닝 맵 등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논리와 스토리라인을 부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데이터 및 통계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데이터 수집에 집중했고, 다양한 통계 자료를 모으고 해석해보았습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자, 논리적 근거를 구성하고 스토리라인을 설계하는 과정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의 논리에 제 자신이 설득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나서부터는 스트레스로만 가득찼던 프로젝트가 너무나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이 아닌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취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데이터와 논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를 성취를 위한 재미있는 몰두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3. 2 번 답변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 중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열정을 가지고 몰두했던 일을 한 가지만 작성해 주세요. 해당 활동으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도 작성해 주세요. (공백 포함 500 자 이내)

자연대 학생으로서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한 번의 잘못된 투자 결정을 통해 금융과 회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계기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투운사 자격증을 목표로 삼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엔 생소한 분야였지만, 철저한 준비와 끈기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제 자신을 몰두하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 이후에도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경제 분야의 진짜 데이터와 숫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 또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경험을 통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 논리가 맞아'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 탐색을 통해 내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